

2024 가을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커버스토리]
영양실조 위기

[특별 주제]
일 년이 넘는 전쟁들

[현장의 목소리]
활동가 이야기

[사무소 소식]
국내 후원개발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풍요로움의 계절, 마음까지도 넉넉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경 너머 다른 모습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 분쟁과 자연재해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번 국경없는의사회 가을호 커버스토리에서는 나이지리아와 수단의 영양실조 위기에 대해 다룹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생명을 살리는 레시피를 전파하며, 위기에 처한 이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수단과 가자지구 분쟁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담았습니다. 잊혀서는 안 될 로힝야 난민 위기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모잠비크에서 자연재해가 보건에 미친 영향을 다룬 특별한 카툰도 소개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지지 덕분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된 '내가 그린 국경없는의사회' 작품 전시회는 한국 후원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후원자님들의 작품과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엠마 캠벨



목차

- 04 커버스토리
영양실조 위기,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
- 08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 10 특별 주제
일 년이 넘는 전쟁들
- 12 세계 최대 난민 위기
로힝야 사태, 이후 7년
- 14 모잠비크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 18 현장의 목소리
- 20 후원자 작품 공간
- 22 후원 소식

COVER STORY 나이지리아 케비 지역에서 영양실조 상태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증진팀 책임자 마리암 무함마드, 2024년 1월 ©Georg Gassauer/MSF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64 여윤빌딩 3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 www.msf.or.kr
- facebook.com/msfkorea
- @msfkorea
- @msfkorea
- youtube.com/msfkorea
- @국경없는의사회
- blog.naver.com/msfkr

발행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인 엠마 캠벨
편집기획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커뮤니케이션국
디자인 (주)헤즈 대표 배명섭
 아트디렉터 원상철
 디자이너 주혜슬

[COVER STORY]

영양실조 위기,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



1.

영양실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방은 항상 치료보다 낫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여기에 평생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증 영양실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션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레시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죠.”

나이지리아 북서부 케비Kebbi주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지역보건증진팀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사람들 앞에서 ‘톰 브라운Tom Brown’ 레시피로 불리는 요리법을 시연하기도 하는 마리암Maryam Muhammad의 말입니다. 노래와 함께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워지는 이 요리법. 어떤 거냐고요?



2.

‘달콤한 죽’을 먹으러 가자!

케비 지역에서는 수수·기장과 콩, 땅콩을 간단하게 6:3:1 비율로 섞어서 만든답니다. 먼저 재료들을 불리고, 세척하고, 굵는 과정을 거친 이후 혼합해 분쇄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분말을 깨끗한 물과 섞어서 끓는 물에 부은 다음 몇 분 동안 끓이면 죽이 완성! 지역 재료 수급이나 선호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팥유나 모링가 잎, 우유, 고기 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 식단과도 유사하지 않을까요?

- 1. 2024년 1월 케비주 어느 마을에서 톰 브라운 레시피를 시연하는 마리암 ©Georg Gassauer/MSF
- 2. 톰 브라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의 일부이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재배돼 현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수수, 콩과 땅콩 간 것을 섞는다. ©Georg Gassauer/MSF

아동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

나이지리아 북서부 잠파라Zamfara주에서 영양실조를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심각한 상황’ 기준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감당 가능한 영양실조는 없다

물가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30년 만에 최악 수준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요리는 당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024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마리암을 포함한 보건증진팀이 케비 인근에서만 554차례 이런 시연을 진행한 이유죠. 남성 1,461명을 포함하여 13,300명 이상이 이러한 시연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2022-2023년 나이지리아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톰 브라운 레시피는 중등도 급성영양실조MAM 아동들 사이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영양실조 치료식과 비교해보면 비용 대비 도달 효과가 크기도 하고요.

그러나 케비주를 비롯한 나이지리아 북부 대부분 지역의 수요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대응은 부족합니다. 이 지역 대부분이 영양실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나이지리아 북동/북서부 지역에서 급성 영양실조를 앓는 5세 미만 아동이 약 440만 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바우치Bauchi주에서도 영양실조 사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팀은 의료 대응 활동을 빠르게 확대해왔습니다.



2024년 5월 나이지리아 북서부 잠파라주 주르미 종합병원 영양실조 치료센터 앞에서 딸 니마를 안고 선 하디자 무사Hadiza Musa ©Abba Adamu Musa/MSF



2024년 7월 나이지리아 바우치주 국경없는의사회 입원 치료식 센터에서 추가로 설치된 텐트에 입원한 환자들 ©Miguel Godonou/MSF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국경없는의사회 영양실조 자문관 나탈리 Nathalie Avril는 수요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규모 있는 대응 활동과 아동을 위한 종합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아동 영양실조가 증중으로 발전하기 전에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자들이 뮤악 MUAC, mid-upper arm circumference 밴드를 사용해 집에서 아이들의 상완 둘레를 측정하도록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 위기를 심화하는 분쟁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만 영양실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영양실조 위기를 야기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심화시킵니다. 매일의 영양 섭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70% 가량이 분쟁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케냐 출신으로 국경없는의사회와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수단과 예멘 등지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의료인 케네디 Kennedy Oleta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서는 물류 공급 문제로 인해 구명 지원을 위한 비용마저 끝없이 치솟습니다. 5톤 중량의 구호품을 실은 전세 비행기 비용으로 15,000불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비용이면 분쟁이 없는 좀 더 안정적인 지역에선 20톤 짜리 트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



2024년 7월 나이지리아 바우치주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뮤악 밴드를 이용해 영양실조 아동 상완 둘레를 측정하는 모습 ©Miguel Godonou/MSF

수단의 위기

작년에 전쟁이 발발한 수단 북다르푸르의 가장 크고 오래된 국내 실향민 캠프 중 하나인 잠잠 Zamzam 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시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23년 4월 분쟁 발발 이후 이곳 모든 영양실조 관련 지표가 긴급사태 기준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심각한 영양실조 사태는 각종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보통 12월은 수확철이라 식량 재고가 가장 넉넉하기 때문에 원래 1월에는 영양실조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사람들이 불안정한 치안 때문에 농작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이와 더불어 그나마도 얼마 되지 않던 농업 생산량이 적은 강수량 탓에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아동 및 여성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잠잠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년 1월. ©MSF

국경없는의사회 수단 긴급대응 책임자 클레어 Claire Nicolet의 말입니다. 해당 캠프에서 유일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국경없는의사회의 소규모 진료소는 환자 수와 이들의 증중도로 인해 과부하에 걸렸을 정도입니다. 수단 전쟁 이후 북다르푸르의 취약했던 보건 체계와 인도적 대응은 붕괴됐습니다. 도로 등 공급 경로가 막히면서 다른 단체들의 지원도 중단되고 물자들이 부족해 주도 엘 파시르 El Fasher에서 전개되던 영양실조 프로그램도 더는 존재하지 않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 프랑스 전체 면적에 준하는 총 다섯 개 다르푸르주 전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무상으로 소아과 의료자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규모 국제단체였습니다. 전쟁 시작 이래 2024년 6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수단에서 34,751명의 급성 영양실조 아동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



2023년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한 지역 지도와 지역명은 그 법적 지위에 관한 국경없는의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년부터 지중해 중부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생명과 사연, 추억이 국경없는의사회 수색구조선 지오배런츠호에 올랐습니다. 안전을 찾아 모든 걸 뒤로 한 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이들이 힘든 여정에도 소중하게 간직하는 소지품은 무엇일까요? 지오배런츠호에 승선한 생존자들이 가장 소중한 소지품에 얽힌 사연과 추억을 공유합니다. 고국에서부터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이 작은 보물들.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을 상징하거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깊은 의미와 감정이 담겨 있는 사진, 목걸이, 노트 등 다양한 물건은 고난에 처한 생존자들에게 기쁨과 의지가 되어줍니다.



딜바 Dilba, 30세
시리아 출신

2024년 2월 5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중해를 건너려던 딜바와 13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을 구조했다. 그들은 정원이 초과된 목선을 타고 있었다. ©Mohamad Cheblak/MSF

01

“저는 남편, 아이들, 형제자매, 친한 친구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제가 제일 아끼는 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에요. 추억을 간직하려고 이 사진들을 모두 가지고 다닙니다.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두들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노르웨이 혹은 네덜란드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일부는 다마스쿠스 Damascus에 남았고, 저는 코바니 Kobani로 갔습니다. 저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살던 동네와 친구들, 나고 자란 곳을 떠나야 했어요. 전쟁은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못 본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추억은 남아 있죠.”

전문
읽어보기



아메르 Amer 가명, 31세
시리아 출신

아메르와 그의 남동생인 26세 칼랄 Khalil 가명은 2021년까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살다가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 리비아로 떠났다. 2023년 11월 30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조난당한 섬유유리 보트에 타고 있던 아메르와 칼랄을 구조했다. ©Mohamad Cheblak/MSF



하미드 Hamid, 27세
파키스탄 출신

하미드는 파키스탄 펀자브 Punjab 지역 출신이다. 그는 2022년 고국인 파키스탄을 떠나 두바이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리비아로 이동했다. 그는 바다를 건너기 전 리비아에 머물 때 주유소에서 근무했다. 2023년 11월 17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조난당한 목선을 타고 있던 하미드와 다른 50명의 사람들을 구조했다. ©Mohamad Cheblak/MSF

02

“인생이 고달프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소소한 물건들이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왜 제가 저 자신과 고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이주하기로 했는지 다시금 떠올립니다. 수많은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는 물건들이죠. 망가트리지 않고 국경을 건너 이동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사막과 계곡을 건널 때도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있던 옷을 버리는 건 괜찮았는데 이 물건들만큼은 그럴 수 없었죠. 이 목재 장식은 더위와 습기 때문에 좀 손상되었지만 제가 고칠 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수첩도 있습니다. 제가 시나 문학 작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마드리드 Madrid, 28세
시리아 출신

2024년 2월 5일, 마드리드는 남편, 아들, 남편의 모친과 함께 리비아 해안에서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목선을 타고 유럽에 탈기 위한 항해를 단행했다. 약 15시간 후,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네 사람과 다른 130명의 사람들을 지중해 한가운데서 구조했다. ©Mohamad Cheblak/MSF

04

03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반지와 목걸이는 형제 2명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이 반지와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들을 착용하고 있을 땐 마치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아요. 리비아에 있을 때는 반지와 목걸이 둘 다 착용하지 않았어요. 빼앗길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오배런츠호에 승선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했어요. 여기라면 빼앗길 염려가 없으니까요.”

“남편인 모아타즈 Moataz와 저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어요. 연애 초창기에 남편은 이 시계를 선물해 줬죠. 훗날 우린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부터 이 시계를 꼭 차고 있어요. 리비아로 갔을 때도 이 시계를 가져갔죠.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까 걱정되긴 했지만요. 이 시계는 남편의 사랑이 담긴 거라 제게 너무 소중했거든요. 리비아 구금 센터에 있을 때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겼지만 그래도 계속 차고 있었어요. 잠을 자거나 씻을 때도 항상 차고 있어요. 이 시계는 저와 남편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물건이니까요.”

[특별 주제 - 일 년이 넘는 전쟁들]

국경없는의사회 의사들이 전하는 이야기

가자지구

잊혀선 안 될 현실의 기록

자비드 압델모네임 Javid Abdelmoneim은 영국 출신 응급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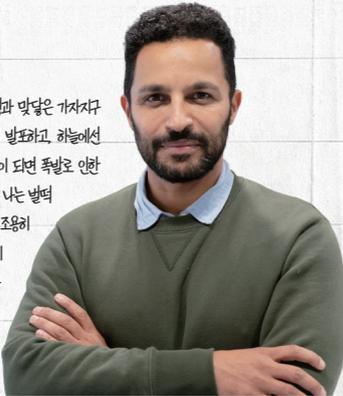
의사이자 전 국경없는의사회 영국 회장입니다.

그는 2024년 6-7월 가자지구에서 의료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자비드의 가자지구 체류 당시 일지 내용 일부를 나눕니다.

6월 6일 목요일

가자지구에서의 첫날 밤이다. 이스라엘이 아덴 국경과 맞닿은 가자지구 해안가에 도착했다. 바다에서 군함이 해안선을 향해 발사되고, 하늘에선 드론과 헬리콥터 전투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밤이 되면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집 창문이 두들겨 깨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 살피는데, 정작 드론은 별 반응 없이 조용히 누워 잠만 잔다. 이렇듯 가자지구를 달린 기록한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북부, 중부, 남부 등 가자지구 전역 주민들에게 담긴 현실이다.



6월 7일 금요일

운영이 재개된 가자지구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의 야전 치료실 내부. 2024년 6월. ©Javid Abdelmoneim/MSF



오늘은 최근 화상 및 외상 정형외과 병동 운영이 재개된 칸 유니스 Khan Younis의 나세르 병원 Nasser Hospital과 [자 보] 칸요 진료소 중 한곳을 방문했다. 5월 초 라파 Rafah에서 발생한 공격 이후, 국경없는의사회는 라파 인도네시아 야전 병원 Rafah Indonesian Field Hospital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했다.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군에 포위된 적 있는 나세르 병원으로 다시 이동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가자지구 중부의 데이르 알 발라 Deir al Balah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야전 임시 텐트를 지나왔다. 해안선에서 내륙까지 폭 넓은 텐트들은 한 치의 여유 공간도 없이 뻗어붙어 있었다. "인도적 지대 humanitarian zone"로 지정된 그곳에는 약 백만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가자지구 사람들은 생존에 적합한 공간이 부족했다. [자 보] 칸요 센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내리는 전탄은 물과 위생에 관련되어 있다. 이는 식사, 피부 및 감염 예방에 필요한 깨끗한 물과 화장실, 샤워, 소독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6월 8일 토요일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이 전개되면서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누세이라트 Nusairat 캠프에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캠프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알 아크사 Al Aqsa 병원인데, 거기서 활동하는 의료팀은 이미 수많은 부상자로 과부하에 걸렸다. 알 아크사 의료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약 60명의 환자가 나세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중 19명은 수술이 필요한 화상 및 정형외과적 외상을 입은 상태로 우리 병동에 들어왔다.

전문 읽어보기



6월 9일 일요일

우리 아직도 어제 일로 화평이었는데 더 많은 환자가 유입되면서 부담은 가중되지만 하고 있다. 구조된 사람보다 단지 부차적으로 희생된 사람의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은 인류의 수차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이런 규모의 사상자 발생이 가자지구에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6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인도의 구조를 위한 초음 차량을 타고 북쪽을 향해 가자지구 Gaza City로 이동한다. 전쟁 이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시작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져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났다. 이스라엘군은 군사 완충지대를 설치해 북부와 남부를 단절시켰다. 관련된 영토 속 또 다른 고립 영토가 생긴 것이다. 그 이후로 북부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거의 단절되어 왔다. 놀랍게도 일부 국경없는의사회 동료들은 그곳에 남기로 했다. 진료소에 있던 동료들은 4월 이후 다른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후 북부로 향하는 인도의 구조를 위한 초음 차량 유입이 여섯 번이나 취소되자 안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나를 만나자 반기워했다. 나는 의료 필자를 가져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우린도 애타지 않았다. 초음 차량을 타고 남부로 향하기 전 그들과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어떤 말로 괴로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진료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소에는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2명이 주 6일 근무하며 일주일에 평균 3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자비드가 현장 방문 당시 촬영한 가자지구 도로. 2024년 6월. ©Javid Abdelmoneim/MSF



가자지구 북부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자비드와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년 6월. ©Javid Abdelmoneim/MSF

6월 13일 목요일

어제 목격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해안에서 약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초음 차량이 완충지대에 들어가기 전 대기 지점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떤 남자들이 얇은 바깥쪽에서 야망을 단가 모음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 공용 전자 4대와 탱크가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총알이 발사되면서 물과 모래가 사방으로 튀었고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남자 2명이 모래밭에 누워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당국에 연락해 해당 남성들에게 응급 처치를 하거나 사신을 수습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다른 여들도 돌아왔다. 한 여부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용기를 내어 작전 친구의 사신을 수습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깨들이 사신을 막은 뒤였다고 했다. 이스라엘 당국이 끝내 거절했던 우리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여들은 사신을 직접 수습하기로 했다. 그때는 이미 두 번째 남성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해변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재차 설명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 사신이 초음 차량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사망자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사진 찍었다. 한 남성은 목에 한 발, 다른 남성은 등 뒤에 한 발을 맞아 상경을 관통했다. 그중 한 명은 여전히 야망을 잡고 있었다. 당시 우리는 완충지대 가장자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굶주린 여들을 죽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6월 15일 토요일

내일은 이드 알아드와 Eid al-Adha,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동료 모두가 휴일에도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팔레스타인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되는 게 분명하다. 결국 그들은 인도주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인형인 집단학살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고통에 장사되고 싶지 않아 치러야 할 일에 뛰어들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동료는 내게 "어떤 이드도 희생되는 건 양이 아니라 우리의 겨우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글을 쓴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보낸 첫 주가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여기서 목격한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카르툼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튀르키예 병원 Turkish hospital, 2024년 5월. ©MSF



수단

1년이 지난 전쟁 속에서도 잃지 않은 희망

국경없는의사회 닥터 이브라힘

국경없는의사회 닥터 이브라힘, 2024년 6월. ©Ala Kheir/MSF

저는 지난 2년간 국경없는의사회 일반의로 활동한 닥터 이브라힘 Dr. Ibrahim, 가명입니다. 저의 여정은 2022년 알 다마진 Al-Damazin 병원의 영양실조 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전쟁이 시작되었고, 당시 저는 분쟁의 한가운데인 와드 마다니 Wad Madani에 있었죠. 초반에는 카르툼 Khartoum에서 와드 마다니로 이동하는 실항민들의 행렬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캠프에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고 가능한 모든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항민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7개월 동안 우리는 캠프에서 영양실조, 홍역, 콜레라, 기타 전염병을 치료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어 캠프를 떠나야 하는 순간 직전까지도 실항민들에게 생명줄이 되어주었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와드 마다니 병원에서 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했지만 전력, 물, 안전한 환경 등의 부재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해당 도시에서 우리는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항민들이 와드 마다니로 향하는 여정은 매우 가슴 아픕니다. 일부는 수레를 타거나 당나귀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대다수는 아무런 식량도 없이 5일을 걸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도착하고요, 질병은 만연했고 물자는 줄어들고 있었죠.

이동진료소는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렸죠. 이렇듯 엄청난 압박에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중증 환자부터 경증 환자까지 분류하고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환자는 현장에서 치료했습니다. 와드 마다니에서 공격 초기에 우리는 폭발음이 들려오는 상황을 무릅쓰고 병원에서 활동하는 팀을 도와 총상, 포탄 부상, 파편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가 병원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숙소로 돌아와야 했죠. 무장 남성들이 우리를 심문하고, 숙소를 수색하고, 총으로 위협하며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팀 중 일부는 다른 주로 대피했고, 나머지는 카르툼의 바샤르 병원 Bashair Hospital에 남아 계속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난관은 의료 물자 부족입니다. 이제 수술 장비가 고갈되어서 물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위험을 감수하며 그곳에 남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세나 Sennar로 대피시켰고요, 총격과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곳에 남기로 한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총격과 폭격 소리가 들려오는 카르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어요. 가족은 이제 수단에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족이 몹시 보고 싶지만, 내 나라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제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와드 마다니 소재 캠프에서 온 한 어머니가 카르툼에서 저를 다시 보았을 때, 제가 그 캠프를 방문했던 닥터 이브라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돌보던 한 장애 남성에게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녀의 환했던 표정은 금방 다시 어두워졌죠. 전쟁 이전의 삶은 평범했어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돕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하지만 지금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가족은 이제 제 곁에 없죠.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이렇듯 암울한 상황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강제로 떠나야 하는 위협에서 벗어나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하는 데 힘쓸 수 있을 겁니다. ✨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쪽에서 계속되는 고난 세계 최대 난민 위기 로HINGYA 사태, 이후 7년

70만 명 이상의 로HINGYA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폭력과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로 대규모 탈출을 감행했던 2017년 8월, 이후 7년 이상이 더 흘렀습니다. 2021년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2023년 10월 말부터 미얀마 북부에서 무장 단체들이 개입한 전면 전투가 격화 되면서, 지금 이 순간 라카인주에 남아 있는 또 다른 수십만 명의 로HINGYA 사람들에게는 국경을 넘는다는 선택 역시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역시 라카인주에서 악화하는 치안과 사무소 및 약국 전소 사태를 겪으며 해당 지역 활동을 2024년 6월을 기해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

©Sahat Zia Hero

한 로HINGYA 부부가
아픈 아이를 안고
의사를 찾아가고 있다.
2023년 10월.



고된 캠프에서의 삶

18세 소녀 사데카 Sadeka는 부모 없이 언니와 단둘이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10월.

그러나 국경을 넘어 도달한 '세계 최대의 난민 캠프' 콕스바자르에서도 로HINGYA 사람들의 인도적 위기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콕스바자르에서 이 무슬림 소수 민족이 겪어온 고통에 대해 줄어드는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려 노력하는 한편 필수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계속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콕스바자르 로HINGYA 사람들이 찍은 로HINGYA 사람들의 사진을 여기에 전합니다. 2017년 다른 70만 명 이상 로HINGYA들과 함께 라카인주 폭력 사태를 피해 피난길에 올라 콕스바자르에 도착한 이후 그곳에서 로HINGYA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기록해 온 3명의 로HINGYA 사진가들 — 로 아신 압두모납 Ro Yassin Abdumonab, 이쉬라트 비비 Ishrat Bibi, 사하트 지아 히로 Sahat Zia Hero — 이 공유해온 사진들입니다.

FOCUS ON ROHINGYA



©Ishrat Bibi

쓰레기 더미에서



©Ro Yassin Abdumonab

로HINGYA 난민 캠프 중 한 곳의 쓰레기 더미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2023년 10월.

밥벌이

79세 누르 모하메드 Nur Mohammad가 대나무로 닭장을 만들고 있다. 군인 출신인 그는 현재 부족한 식량 배급을 메꿔 여성 식구를 먹이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10월.

우리만의 놀이터

재난이 되면 캠프 내 좁은 골목길은 아이들로 가득 찬다. 놀 곳이 마땅치 않은 캠프에서 이런 좁은 골목길은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2023년 10월.



©Sahat Zia Hero

모잠비크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오늘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증진 담당 직원인 나메틸 Nаметил 보건센터에서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소외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 NTD)은 상관이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 수백 가지 중 거의 60%는 가뭄, 사이클론, 폭염으로 악화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각종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러한 전염병들은 보통 물, 공기, 음식 혹은 모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기후변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데요!

모든 국가가 기후 관련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기후 문제 완화 역량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원인은 전 지구적일 수도 있고 지역적일 수도 있지만, 끔찍한 기후 현상은 특정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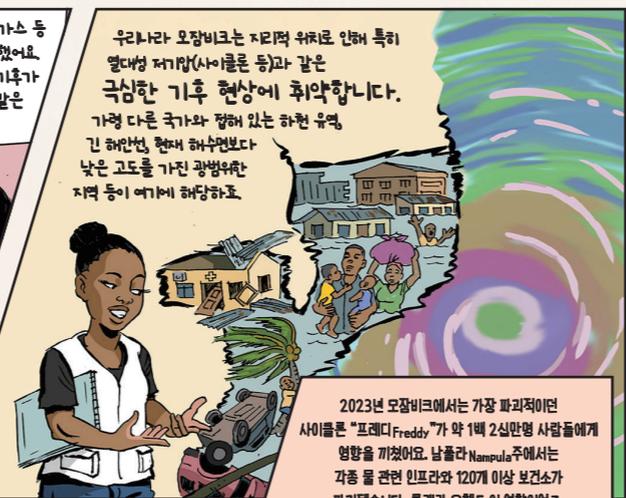


우리나라 모잠비크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특히 열대성 저압(사이클론 등)과 같은 극심한 기후 현상에 취약합니다. 기력 다른 국가와 정해 있는 하천 유역 긴 해안선, 현재 해수면보다 낮은 고도를 가진 광범위한 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2023년 모잠비크에서는 가장 파괴적이던 사이클론 "프레디 Freddy"가 약 1백 2십만명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남풀라 Nampula 주에서는 각종 물 관련 인프라와 120개 이상 보건소가 파괴됐습니다. 콜레라 유행도 이 영향이었죠.

하지만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한 게 도대체 누구죠?
누군진 몰라도
저세상으로 보내는 게 마땅하죠!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 연소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최근 수년간 특히 정상적인 강우 패턴이 깨지고 기온이 달라지면서 가뭄이 상습화하고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메릴리 Melliri 강과 무타카지 Mutacazi 강은 극도로 높은 기온과 강우량 부족으로 완전히 메마른 상태입니다. 홍수와 사이클론은 주택과 인프라를 포함해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 도로를 차단하여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극도로 높은 기온은 화재, 가뭄, 이상 건조를 야기해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야생동물들이 인간에 접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후 현상은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감염원 혹은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소외질환 NTD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소득 인구 거주 지역에서는 종로병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연구, 의약품 생산 및 모니터링을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죠.



기후와 관련된 질병에는
원인 **덴기열**이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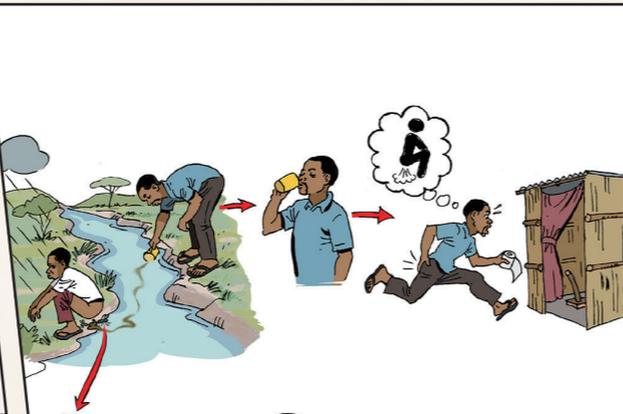


음
몸은 피부를 파고들어 알을 낳는 작은 기생충으로 인해 생깁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매우 가려울 수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4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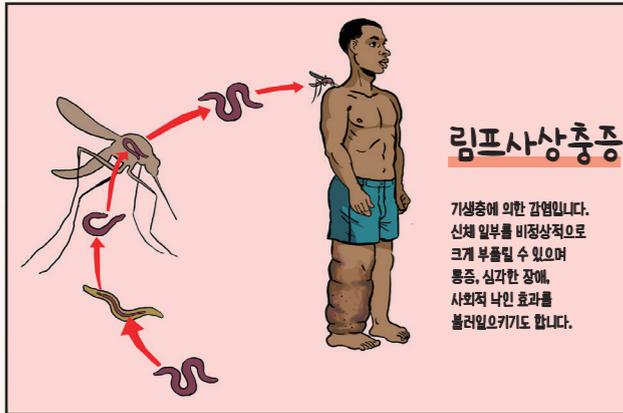


빌하르츠 주혈흡충증

유충으로 오염된 당수에 닿으면 감염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몸에서는 유충이 내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살면서 면역 체계 반응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4천만 명이 이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설사병 및 콜레라 등도 있습니다.



림프사상충증

기생충에 의한 감염입니다. 신체 일부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부풀릴 수 있으며 통증, 심각한 장애, 사회적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익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한 기후변화 여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물론 있죠.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모고볼라스 Mogovilas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정기적으로 보건증진 세션을 전개합니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여러 보건센터를 지원하기도 하죠.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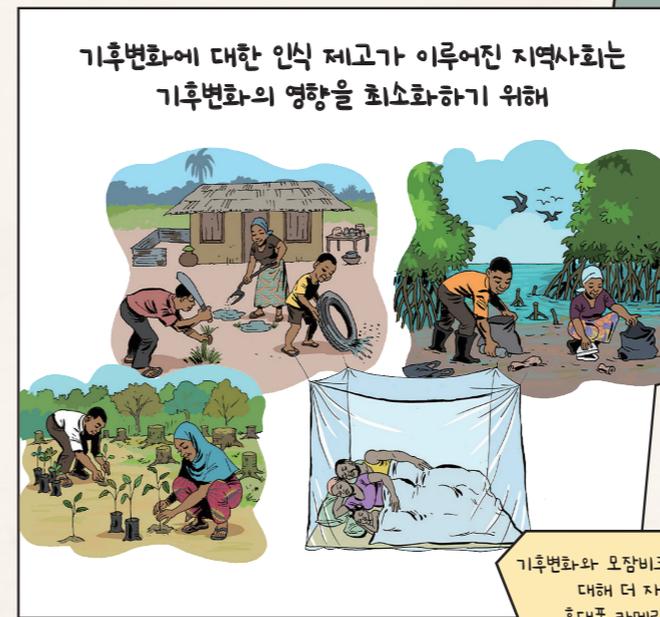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등 각종 활동을 통해 현지 보건 체계를 지원하죠.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생 폐기물 소각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들이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진 지역사회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 조치 시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모잠비크, 이 만화의 작업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저를 인터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01 정부근

공급망 관리자

나이저리아 아부자 Abuja | 2023년 11월 - 2024년 5월



어떤 '인생 이모작'

어떤 일을 했나요? 공급망 관리자 Supply Chain Manager로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물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담당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품, 즉 기름 등 발전기에 필요한 연료부터 컴퓨터, 에어컨, 스마트폰 등 각종 사무실 비품까지 제때, 적정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국내외 우수 기업체에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고 임원급으로 은퇴했지만, 처음 국경없는의사회 매니지먼트 역량과 기술을 보고 놀란 이유?

알아서 잘 굴러가세요. 파견되기 전에는 '현지 직원들이 있고, 국제적으로 파견되는 직원 International Mobile Staff, 이하 IMS로 표기 즉, 활동가들은 단기로 6~9개월씩만 파견된다'고 해서, '이게 관리가 잘 되겠냐'하는 회의를 품고 있었거든요. 제가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유럽계 다국적 회사 사장으로도 있어봤고, 한국 정부 원조기관에서 파견되는 타국 정부 장관 자문으로도 일해봤는데요. 이런 곳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어서 처음엔 '여기는 뭐가 있어서 잘 굴러갈까?' 궁금했을 정도로 잘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민간 부문은 높은 급여가 일의 동력이 될 테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데도요(웃음). 결국은 정책과 매뉴얼 부분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후원하는 곳에 직접 가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



활동가 이야기 더 알아보기

솔직하게 말해서 현지에 나가보기 전에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조금은 어색하고 위축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고객 만족이다. 그런데 우리 고객이 누구냐?' 내부적으로는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소, 프로젝트 현장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생명을 살리는 환자들이 될 수도 있죠.

후원자에서 활동가로

저도 작년 초반부터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을 시작한 후원자입니다. 활동을 나가게 된 동기로 생업에서 은퇴 후에 '내가 후원하는 곳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후부터는 집사람과 결혼한 자식들에게도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을 권유해서 이제 그들도 후원자가 됐습니다. 주위 친구, 소모임 등에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경험과 현장 사례를 소개하고 적극 추천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더 나이 들기 전에 너희도 다녀와라. 아니면 후원을 해라'하고요. 인생 이모작 시기에는 손주들 돌보기와 강의 등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저도 그런 것들도 다 하고 있지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02 스칼렛 웅 Scarlett Wong

응급 정신건강 활동 관리자

가자지구 라파 Rafah | 2024년 2월 - 4월



분쟁 지역의 정신건강 지원

보호자 없이 고아가 된 아동들의 숫자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약 17,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피난처를 찾아 비좁은 라파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의 밀도도 상당합니다. 수십만 개의 텐트가 비, 바람, 추위에 노출된 채 사생활 보호와 식량, 물, 전기에 대한 접근성도 거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는 가자지구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주민들은 보통 우리같이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부모들은 일하러 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텐트에서 거주하며 학교나 일터에도 가지 못하고 식량과 거처도 없는 채로 지내고 있죠. 두려움 속에서 불가피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삶은 사실상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 밤 많은 부모들이 이른 새벽에 다시 들려오는 포격과 폭격 소리에 울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 상황은 제가 본 것 중 최악의 인도적 재앙입니다. 다른 인도적 상황의 경우,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고 민간인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시됩니다. 다른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대개 이렇게까지 고의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은 있어도, 굶주림을 당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본 적은 있어도,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되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국경 너머에서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외출하고, 학교와 직장에 다니며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네 전체가 파괴되고, 민간 인프라가 손상되고, 주민들이 인위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평화로운 삶과 우리가 누리고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똑같이 원합니다. 그들은 친구 혹은 가족들과 밥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자지구의 문해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은 삶과 미래를 꿈꿉니다.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 교사, 간호사, 소규모 자영업자, 변호사, 조산사, 축구팬, 예술가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국제사회 전체가 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민간인, 병역, 의료진들을 위한 휴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제법과 국제 질서의 정당성에 우리가 과연 희망, 믿음, 기대를 걸어도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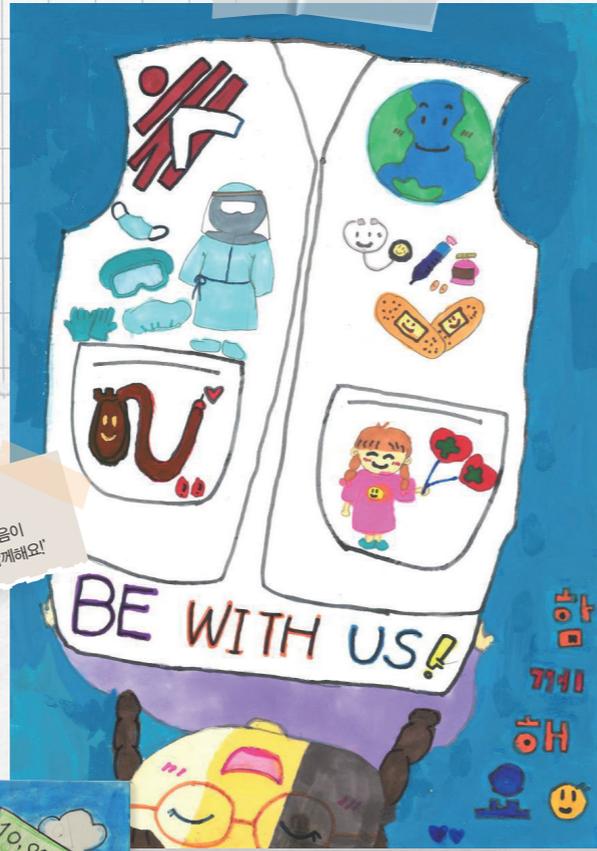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력을 다하는 현지 동료들

팔레스타인 현지 동료들은 매일 출근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민들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탱크, 미사일, 쿼드콥터, 드론, 아파치 헬리콥터 사격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터로 향해 할 일을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을 찾아온 모든 아동, 남성, 여성들에게 헌신과 친절을 보이는 동료들을 보면서 저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죠.

[후원자 작품 공간]

내가 그린 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6월에 특별한 2024 후원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전시회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의 멋진 후원자님들이 자신만의 감성으로 표현한 국경없는의사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발췌된 작품 일부를 이곳에 소개해 우리의 감동을 나눕니다.



함께해요 @신유나 후원자님
후원자님 가정에서 어린이의 친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아 외칩니다. '함께해요!'

신께서 우리에게
바람과 공기와 햇볕은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에게도 공평합니다.
신의 사랑은 원래 그러하다고 신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러했다고 믿어집니다.
이 하늘과 저 하늘에 같은 열서와 같은 빛깔의 구름이 피어납니다.
고단한 시간은 땅에만 머물뿐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알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배척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생명은 정중함이 아득하게 서려 있을 뿐 구별과 등급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것에서 신이 입술로 불어넣은 태초의 신비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하성 후원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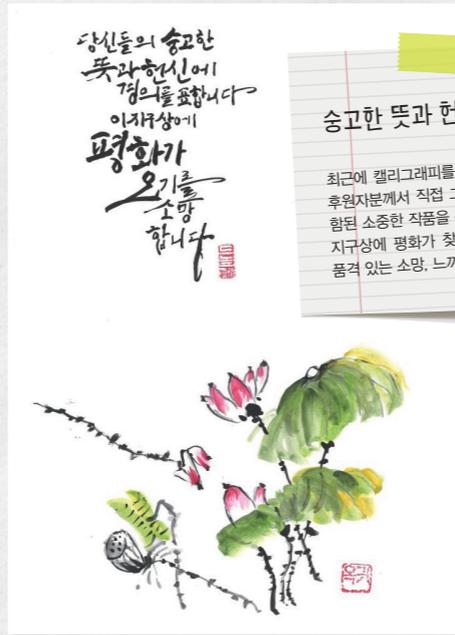


MSF를 위한 커다란 저금통
©정혜민 후원자님
10년이 넘게 국경없는의사회를 후원 중이신 후원자님의 자녀분이 공유해 주신 소중한 그림입니다. 후원금이 주신 소중한 때지저금통, 여기서 전 세계 환자들을 치료하는 주사기도 알약도 의료진도 나옵니다.

밤편지 @이영서 후원자님
국경 너머 편지를 보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눈물의 까닭도 모르는 당신에게 만들레 흠뻑 불듯 나의 간절함을 담아 보내요
당신이 지진에 흔들리지 않도록 홍수에 잠기지 않도록 분쟁에 괴롭지 않도록 무엇보다
고통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기를 부디 당신의 일상이 잠이 아니길
국경 너머 편지를 보내요 주소도 유효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편지는 당신에게 가는 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답장은 오로지 당신의 무탈한 하루
나의 오랜 불면으로 길어진 밤에 위로가 될 당신의 답장이 머지않아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도 될까요
P.S. 당신의 미소는 내게 가장 특별한 추신일 겁니다



구호활동가님, 안녕하세요.
후원자 신해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TV를 통해 국경없는 의사회 의 후원 광고를 보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후원광고에 나온 구호활동가님은 본인이 아무리 치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후원자가 없으면 당장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원자가 그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정말 그 분의 환자를 살리려는 고귀한 마음과 후원자를 대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의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쟁지역, 오지 등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활동하시는 구호활동가님들을 짐심으로 존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부유하길 꿈꾸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구호활동가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자는 의사를 맹목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나의 건강과 목숨을 그 질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분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환자들 마음, 그리고 분쟁지역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힘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곳도 그곳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분들을 대신해서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타지에서 힘들게 지내시며 편히 쉬지도 못하실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구호활동가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노력해주시는 국경없는의사회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항상 행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해정 후원자님



승고한 뜻과 헌신에 경의를 @윤귀옥 후원자님
최근에 캘리그라피를 배우게 되신 70대 후원자분께서 직접 그린 그림까지 포함된 소중한 작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품격 있는 소망, 느껴지지 않나요?

같이 @이주영 후원자님
내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내가 힘들거니 나도 힘들다
같은 지구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한 찰나를 같이 살아가는데
어찌 나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겠는가
나를 보는 너의 눈빛을 나에게 내미는 너의 손짓을
나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릴 수 없으리라
우리 같이 아프지 않을 힘겹지 않을 방법을 찾아
이 한 찰나의 삶을 같이 누리고 같이 살다가 가자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또 바라 보리라

아픈데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민하 후원자님
지난 5년간 꾸준히 정기후원해 주신 후원자분 이 6세 자녀의 귀여운 그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주말, 아이와 함께 국경없는의 사회를 생각하며 함께 그리셨다고 해요. 6살 아 이가 생각하는 국경없는의사회는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랍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 세상을 치유하는 마음 @정혜민 후원자님
다양하게 발생하는 의료 수요의 현장에서 국경없는의 사회 팀원들이 전개하고 있는 각종 구호 활동을 사실 적으로 표현해주신 그림입니다. 제목과 잘 어울리죠?

[후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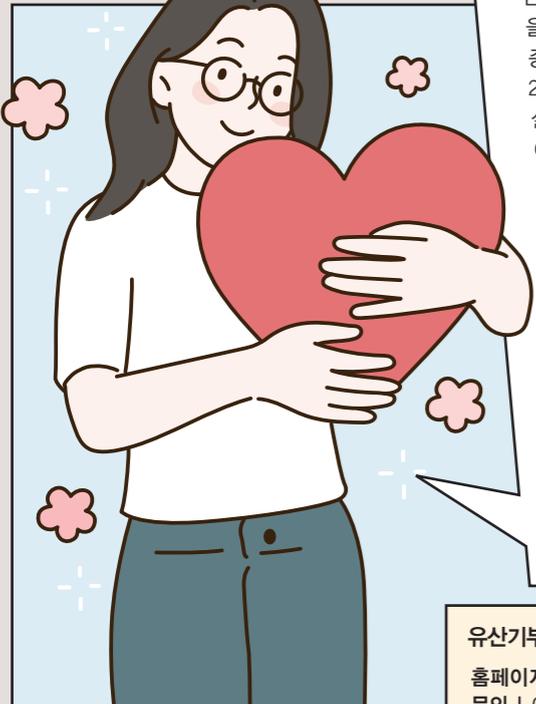
스쿨펀드레이저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이벤트 후기

안녕하세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입니다. 저희는 학교 축제 때 '합피(HAPI, 교내 의료봉사 동아리) 펀드레이징 부스'를 운영하여 스쿨펀드레이저로 활동하였습니다. 뜨개질로 네잎클로버를 만들어서 부스에서 판매하고, 쿠키를 만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펀드레이징 자체를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스 초반에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품 구매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렸습니다. 저희 부스에 방문한 손님들과 부원들 모두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스쿨펀드레이저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여 수익금을 좋은 곳에 기부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유산기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대 중반에 천주교 세례를 받은 뒤로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 공기, 건강, 자연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전하고자 여러 NGO단체에 후원을 했고 28살에 장기기증, 39살에 골수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에서 '국경없는의사회'를 알게 되어 2023년도에 커피 2잔 값을 아끼며 적게나마 정기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공수래공수거'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죽을 때 무엇 하나 가져갈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연히 유튜브로 국경없는의사회에 유산기부하신 여성분의 인터뷰 광고를 보게 되었고,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실에 문의하여 유언대용신탁 방법을 안내받은 뒤,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유언대용신탁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흙으로 빚어져 나그네로 소풍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 제 유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 반대편의 가정이 평화를 얻고, 국경없는의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산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따뜻한 나눔과 유산기부에 참여하시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산기부에 참여한 김가브리엘라 후원자님

유산기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합니다.

홈페이지 | msf.or.kr/legacy
문의 | 이메일 Legacy@seoul.msf.org 전화 02-3703-3555 (내선4)



기업후원

클로버게임즈, 게이머들의 마음 전달받아 2천만원 기부

클로버게임즈는 '로드 오브 히어로즈' 서비스 4주년을 기념하며 3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친구 초대 페스티벌 'We Play Together'를 진행했고, 기부 캠페인의 선한 취지에 공감한 약 2만 명의 유저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마련된 기부 포인트와 IP를 활용한 오프라인 콜라보 카페 수익금 약 2천만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클로버게임즈 윤성국 대표는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로드 오브 히어로즈' 속 평화의 메시지를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저들이 보여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가자지구 피해 지원을 위해 5천만원 기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긴급 구호금 5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박진원 이사장님도 1천만원을 기부하며 가자지구에 마음을 보냈습니다. 기부 전달식에 참석한 박진원 이사장님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자지구의 어린이들과 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공감해 주시고, 지속해서 의료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신 클로버게임즈와 '로드 오브 히어로즈' 유저 여러분, 아름다운가게와 박진원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약국후원

대학약국 전남희 후원자님

부산 장전동에서 대학약국을 운영하시는 전남희 후원자님께서 자선활동을 함께 하는 이웃들과 뜻을 모아 후원하신다며 1천만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약사로서 아픈 환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지켜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신다며, 국경없는의사회가 의료 봉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서 동참한다고 후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후원약국' 프로그램: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진료소와 병원에 약품과 의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약국을 후원하는 한국의 약국으로 참여

문의 | 이메일 majorgift@seoul.msf.org 전화 02-3703-3554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더욱 안정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약국 명의로 후원해 주신 '후원약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경을 넘는 구호활동가, 다음은 당신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모집
msf.or.kr/tothefield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설립되어 분쟁·전염병 창궐·자연재해·의료 소외 지역에서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입니다.

후원문의 02-3703-3555 / 문자기부 #1971 (3,000원)